

“포괄·균형…시대에 맞는 수행자 육성”

승가대학 교과 개편안 ‘주목’

종단의 핵심과제대로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수행자’가 되려면 우선 사회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승가대학 교과개편안의 키워드는 ‘포괄’과 ‘균형’이다. 불교 전반과 함께 현대사회와의 소통에 필요한 인접학문을 교육해 시대에 걸맞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한다는 취지다. 온고(溫故)를 바탕으로 한 지신(知新)의 독려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제1차 회의. 김형주 기자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향후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편안에 대한 중도들의 공의를 모을 계획이다. 오는 16일경 교육원과 교육위원회, 중앙종회 교육분과 및 포교분과 위원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간담회가 첫 번째 ‘대중공사’다. 승가교육진흥회가 추진하는 교과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교재 한글화

‘치문’ ‘사집’ ‘사교’ ‘대교’로 갈음되는 현행 승가대학의 교과목은 조선시대에 확립됐다. 예의 한문교재를 중심으로 한 교육은 원전의 난자(難字) 찾거나 자구 해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한문해석 능력만 강조한 나머지, 지식의 습득과 응용이 원활하지 못했다. 교재를 한글로 통일하

면 불교 전반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깊이 있는 사유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불교사·인문교양 포괄 ‘선(禪)’ 교육 강화

현재의 교육방식은 대승불교 경전에만 대한 강독이 주종이다. 그러나 불교의 진면목을 살피려면 불교가 시작된 부처님 당시부터 출발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 오늘날까지 통시적으로 짚어야 한다. 수행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다지기 위한 인문교양수업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승가교육의 오랜 목표인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수행자의 언행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 학년에 걸쳐 선(禪) 관련 교과목을 편성했다. 실참(實參)도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 교재 개발 및 강사 발굴

승가교육의 전문화 특성화라는 원칙에 따라 짜인체 있는 전공교재를 개발하고 유능한 강사를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현재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전공강사들의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각 과목의 표준 강의계획서 작성을 추진 중이다.

■ 계절학기·학점이수제 도입

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를 개설해 참선 염불의례 법문 등 다채로운 실습 위주의 학습을 시행한다. 이론과 실체가 겸비된 종교지도자 육성이 목적이자, 아울러 단순히 4학년이 아닌 일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해 학인들의 향학열을 더욱 자극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승가대학 교과목 주요 개편내용 요약(교육원 발표)

개편 이전	항목	개편 이후
한문원전	교재형태	한글교재(학술서, 번역서, 개론서 등)
4개 과목(四集)	교과목수	총 8개 과목 (100% 증가)
서당식 교육: 교재로 채택한 원전 해독 중심	수업방식	현대적 교수법: 선(禪)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초점
사집 중심의 교과 구성	교과내용	선의 역사, 선전, 수행, 응용 등 禪에 대한 전반적 내용 추가
실참 미반영	실참부분	이론과 실참을 병행하는 교과
응용 미반영	응용부분	현대적 연구성과 및 응용내용 추가
수업 참여	이수구분	학점제(성적에 미달자 재수강)
25%(4년 중 1년)	전체대비 수업비중	20%(졸업학점 120학점 경우)
2학년(사집반)에 집중	강의배치	난이도에 따라 4년간 분산배치
불교계의 현실적 수요와 무관하게 교육진행	수요 민감도	불교계의 현실적 수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교육 내용 구성

‘염불’ ‘염습’ ‘제례’ 보급 불교생활의례봉사단 출범

중앙신도회 부설 ‘3개팀 200여명’ 구성

내년 전국 지부 개설...300명으로 확대

불교식 생활의례 보급을 통해 불자 생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설 봉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사장 직무대행 강동구)은 지난 2일 서울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1층 선운당에서 ‘생활의례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염불 봉사자 양성교육 수료자 및 불교 상례 지도자 과정 수료자 등 200여 명의 봉사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염불봉사팀 △염습봉사팀 △제례봉사팀으로 나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상·장례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사찰 신행단체, 노인요양원, 사회교육원, 동국대의료원 산하 병원, 국립묘지관리, 경찰병원과 연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까지 봉사단의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향후 지부, 지회 개설을 통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강동



지난 2일 ‘생활의례봉사단 출범식’에서 봉사자들이 불교식 생활의례 보급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구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장 직무대행은 “불교를 중흥하고 포교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데 돌파구가 되자”고 밝혔다. 또 봉사단에 임명된 강동원 전 포교사단장은 “공동체가 해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봉사단을 발족하게

법정스님 저서

연말까지 판매

절판을 당부한 법정스님의 책을 오는 12월31일까지 서점에 만날 수 있게 됐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스님의 저서를 출판한 국내 모든 출판사와 완전 합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맑고향기롭게는 △법정스님 49제일인 4월28일까지만 맑고향기롭게의 새로운 인지 발급 △출판사는 7월30일까지만 서점에 책 보급 판매 △인터넷 서점을 포함한 서점은 12월 31일까지만 책 판매 △인터넷의 출판이나 인터넷에 의한 저서 보급 불가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맑고향기롭게는 “향후 발생하는 인세 수익금은 스님의 고매하신 뜻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불자 기업인 모인다

한국불교경제인연합회 6월15일 창립

‘한국불교 중흥’ 기치...200여명 동참

불자 기업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경영을 실천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기 위한 연합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불교경제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구자선)는 오는 6월15일 ‘한국불교경제인연합회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연합회에는 조계종을 비롯해 대교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등 한국불교 종단협의회회의의 5개 주요 종단 소속 기업인은 물론 동국대, 고려대 출신 불자 경영인 등도 함께 동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00여 명의 불자 기업인이 연합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지난 3월 발기인대회와 창립준비위 1차 회의를 진행해 구자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불자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는 연합회는 종단의 구분 없이 범불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우리사회 경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인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들이 도덕 경영과 청년 불자 양성 등을 통해 불교 중흥에 앞장섬으로써 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립준비위는 현재 임장수 등 광견설 상임이사, 김봉석 신아법무법인 변호사 등 20명이 준비위원으로 사단법인화, 회원 모집 등 창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대기업 총수 등 명망 있는 기업인들을 섭외해 회장단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임장수 창립준비위원은 “경제 일선에 있는 불자 기업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불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을 준비하게 됐다”며 “창립 이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마주협, 이주민 지원 활동 활발해지길”

익명 불자 1000만원 회사

익명불자가 이주민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에 1000만원을 보시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지관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는 “지난 3월25일 스스로 불자라고 밝힌 한 40대 후반의 여성이 불교계의 이주민 지원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후원금 1000만원을 보시했다”고 밝혔다.

마주협에 따르면 익명 불자는 마주협 사무실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보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주협은 사무실 보증금 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마주협은 “익명 불자는 이주민 지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주협이 보증금 문

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마음을 내 보시를 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욱 활발한 사업을 펼쳐달라는 말만 전할 뿐 극구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기금 보시와 관련해 회장 지관스님은 “이주민 지원 활동을 위해 마주협에 정성을 보내 줘 고맙다”면서 “이주민 지원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마주협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 만큼 많은 불자들이 이주민을 위한 사업에 정성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마주협은 이주민 법당에서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등의 사업을 위해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중고컴퓨터를 지원받고 있다.

엄태규 기자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개정안) 입법예고

-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대상: 종단 모든 승려(예비승 포함)
-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대한 수증자의 범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 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 하의 법인
-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신고방법: 분한신고서, 사미·사미니계 수계 시, 구족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 시, 각급 법계 품수 시, 주지 품신 시에 「법첩서식 1의 유언장, 「법첩서식 2의 사인증여계약서, 「법첩서식 3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
- 승려의 환속과 사망에 따른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절차
 - 총무원장은 승려가 환속, 사망하였을때 유언장과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보유를 확인하고, 당해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소유 여부를 확인
 - 총무원장은 승려가 환속, 사망하였을때 당해 승려의 개인재산 소유 여부가 확인하고 유언장과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에 의한 당해 재산의 종단 출연 절차진행
 - 총무원장은 승려의 사망으로 인한 당해 승려 개인재산의 종단 출연절차를 진행할 시에 당해 승려의 장례비용과 추모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문도 내지 유족과 협의하여 수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음.
- 기금 적립 및 집행
 -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은 승려법 제30조의2(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적립
 - 재적본사·재직 및 거주사찰·종단 관장하의 법인은 승려법 제30조의2(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승가복지와 승려교육 등의 목적불사를 위해 별도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함.
 - 재적본사·재직 및 거주사찰·종단 관장하의 법인은 적립된 기금 현황을 매년 연말까지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함.
- 유지재단 등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집행방법
 - 기금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 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
 -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 총무원장(위원장), 총무부장, 재무부장(당연직), 총무원장 위촉 중앙종회의원 2인, 외부 전문가 2인
 - 각 교구본사의 기금운영위원회는 주지, 각 국장, 사찰운영위원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3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함.
 - 말사의 경우는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함.

- 종단 관장 하의 각 법인의 기금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3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함.
 - 총무원장은 각 교구본사 및 말사, 종단 관장하의 법인에서의 기금 중 일정 금액을 종단의 승가복지와 승려교육 기금으로 출연을 요구할 수 있음.
 - 기금운영위원회 사무는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총무원장은 필요시 유지재단의 기금운영현황과 각 교구본사, 말사, 종단 관장의 법인의 기금운영현황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음.
7. 권리제한
- 승려법 제30조의2(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출연)에 의한 유언장과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승려에 대해서는 수계, 각급 고시 응시,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함(승려법 개정 후 적용).

위의 총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총무원 총무부로 서면 또는 E-MAIL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전화 02) 2011-1710 FAX 02) 720-3302 E-MAIL pjh65@buddhism.or.kr
담당 사찰교무팀장 박종학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개최 안내

●일 시 - 불기2554(2010)년 4월 19일(월, 음 3.6) 오후 2시 ~ 5시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발 제 -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하여-총무원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의 법적 검토-변호사

-토론 : 교구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각 종정기관스님, 선원스님, 율원스님, 강원교직자스님, 비구니회스님, 기타 승가단체스님

불기2554(2010)년 4월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